

홍 해

2023/여름호

Red Sea Mission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14:6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ohn 14:6



19947 E. Crestline Pl. Centennial, CO 80015
Tel: 303-669-1001
redseamission@gmail.com

홍해선교회

자문위원

강위조 박사(전컬럼비아대학교수)
정성욱 박사(현덴버신학교교수)
최기도 목사(전알제리선교사)

대표:조완길목사(홍해선교회)
사무총장:김병수목사(믿음교회)
한국대표:홍계현목사(비전교회)
간사:박선목 전도사

운영이사

김병수 목사(믿음교회)
권인숙 목사(새문교회)
이명교 목사(한빛교회)
전담양 목사(임마누엘교회)
조완길 목사(홍해선교회)

후원교회

믿음교회(김병수목사)
새문교회(권인숙목사)
은강교회(김용민목사)
임마누엘교회(전담양목사)
주형교회(김선희목사)
행복한교회(전형진목사)
홍해선교회(조완길목사)

후원회원

강신정사모. 김용환집사.
김은경집사. 나혜란집사
이선민권사 이승우회계사
정영숙사모. 조완길목사.
최기도목사. 최충현성도



조우길 작가
길(道)

CONTENTS

- 03 다윗의 유일한 소원(김정영목사)
- 09 소풍(전담양목사)
- 12 정직한 입술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명교목사)
- 14 출애굽 기사에 나타난 구원 (김기영교수)
- 18 아랍의 이상적인 어머니 (공일주박사)
- 22 영적인 존재(조완길목사)
- 26 팔미도 등대의 비밀(김병수목사)
- 29 검은 아프리카 선교(노영환교수)
- 31 간추린 이슬람역사(조완길목사)
- 34 이슬람 담론(공일주박사)
- 37 홍해선교회 세미나 성료
- 40 선교 보고(공일주박사)
- 43 선교지 중보기도



김정영 목사
고강제일교회 목사
강서대학교 목우회 회장

다윗의 유일한 소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본문 시27:4-9, 시24:5-6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믿음의 사람인 다윗의 신앙고백과도 같은 말씀으로 그의 유일한 소원이 담긴 말씀입니다.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다윗의 유일한 소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긴 믿음의 사람이요, 왕이요, 장군이요, 시인이며, 음악가, 연주자 등 다양한 재능의 사람이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인물중에서 인물이며 영웅중에서 영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흰색바탕에 청색으로 두 줄과 육각형의 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별을 다윗의 별 혹은 다윗의 방패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전성기로 흥하고 번영했을 때가 바로 다윗왕의 시대였습니다.

사도행전 13: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기도 어려운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이 했고 허물도 많았습니다. 전쟁을 많이 하여 피를 많이 흘리고 사람도 많이 죽였습니다. 가정에서도 혼란스러운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말씀과 본문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와 집에 거하여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양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4:5-6 함께 읽어 보실까요?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의 글 대부분이 다윗의 글이고 시입니다.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 그 분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름의 그 뜻이 사랑함입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구구절절마다 다윗의 신앙고백과 간증 그의 간구가 나오는데 참으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 18:1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빌리그래함 목사님도 시편을 많이 읽으라고 권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울증이 올 때 시편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였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였습니다.

왕이니 얼마나 바쁘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시57:8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 119:147)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쓴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말이지만 자기 자신의 유익을 필요를 위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 주세요! 의식주 물질 명예 장수 자손 부귀 등등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습디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로 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그 분 예수님 그 분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 그 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 분 한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분을 사모하며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 그 분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내 얼굴을 찾으라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성경에서 주를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를 찾는다는 것 이 말의 근본적인 뜻은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분을 구하는 것을 주를 찾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아빠를 기다릴 때 어떤 어린아이는 아빠의 손만 봅니다(선물,과자등)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마6:33)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 39:7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내 중심에서부터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차지하는 것이 그 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전부이며 그래서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인격체이신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내 모든 것으로 그 분을 사랑하길 원하는 주님과 의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은 것인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지 않으며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호6:3-4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신앙의 본질을 바로 깨달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시 26:8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암 9:11, 행 15:16),(시 26:5-6) 이 말씀은 아주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장소 친밀함이 담긴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집 처소 왕궁을 잘 지었는데 하나님의 전이 너무 초라하고 건축을 하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 보려고 무척 노력했으나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많이 해서 그 결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의 전을 짓게 합니다. 모든 물건과 물자 준비를 다윗이 다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장막을 준비해 놓고 법궤를 모셔올 때 너무나도 기쁘고 좋아서 춤을 추다가 옷이 다 벗어집니다. (대상 16:10-11, 대상 15:1, 삼하 6:12,23)

법궤를 모셔다 놓고 찬양과 경배 기도를 드리는데 바로 이것이 다윗 장막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만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면서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그 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기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섬기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느끼며 산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번영과 부흥을 이루게 하시며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산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는 모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한 사람이 모세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한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겸손하고 온유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자 그분의 삶 역시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산 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 103:7)

모세에게는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사를 알리셨습니다. 행위와 행사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행하심은(행위) 행사는 이적, 기사, 역사 등입니다.

시편 106:13-15 그들의(백성) 요구를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괴하였다(쇠약하였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출 33:12-15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도 무의미합니다.(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함)

이 말씀은 주님이 계시면 지옥도 좋지만 주님이 안계신 천국은 원하지 않습니다란 말과 같습니다. 나는 주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 광야가 더 좋습니다가 모세의 믿음과 마음의 자세 인줄 믿습니다.

신약의 사도바울 역시 그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 그분이었습니다. 빌 3:7-8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세상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모두가 유일한 소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속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담양 목사
임마누엘교회담임목사. 임마누엘기도원원장. 시인
CBS TV 강단설교자. 한국목양문학회장.
본회이사.

소풍

저의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 날이 되면, 저는 김밥 재료를 구입해서 김밥을 직접 싸주고, 과자나 음료수 같은 것을 가방에 한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먹을 것이 가득한 그 가방을 바라보며, 소풍 갈 것을 기대하며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자연으로 나아가, 김밥도 먹고, 즐겁게 뛰어놀고,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들이 가족 앨범 안에 남아 있습니다.

바쁜 일상과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이여! 이처럼 우리 영혼도 앞만 보며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사진기와 같아서, 우리 삶에 스쳐가는 순간들을 마음속에 남겨두지만,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보다는 눈물나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 옛날 다윗을 위로하시고, 만족하게 하셨던 쉼만한 물가로 우리를 데려 가십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이의 얼굴을 정성스레 씻어주듯이, 주 예수님의 구원의 보혈로 눈물자국 가득한 내 영혼을 씻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맞춰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봄꽃 머금은 풍경화처럼 그려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여!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 예수님의 손을 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어린 시절 기쁜 마음으로 소풍을 가듯이, 푸른 초장 설만한 물가로, 주님과 함께 평안의 소풍을 떠나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말씀이 창조의 영으로 이루셨듯이, 당신의 저녁이 저물고 아침이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붙들어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향해 달려가는
어린이처럼 가슴은 두근두근 거리고
화가의 터치로 나타나는 풍경화처럼
오늘 주님과 내가 함께 드릴
추억들이 기대됩니다

마음을 담고 정성 담아
도시락을 싸고
마음속 한가득 붙여놓았던
빛바랜 사진들을 떼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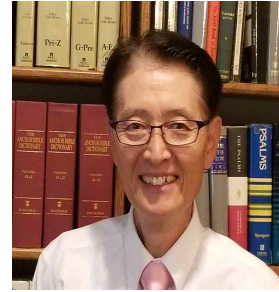
마주 잡은 두 손,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봄 위를 걷습니다

당신의 눈 속에 내가 있고
내 눈 속에 당신이 계시니
어둠 가득한 마음에
빛이 있고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 담긴 꽃송이,
내 머리에 꽃으시고
나는 주님의 무릎에 누워
잔잔히 눈가를 수치는 성령의 입김을 느껴봅니다

어느덧 어둠은 사라지고
주님과 나의 아름다운 추억이 한그득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바라보기에 심히 아름답습니다



이명교 목사
한빛교회 담임목사. 본회이사

‘정직한 입술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

머니투데이는 2019년 1월 6일 자 기사에서 세계적으로 한국은 사기 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2013년 발표를 인용하며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7개 회원국 중 사기 범죄율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 같은 인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에서 사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사기는 거짓의 다른 형태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국가로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필자가 알고 지내던 교인 중에서 말을 할 때 유난히 맹세를 잘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지 않으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라”고 하며 자신의 주장과 입장이 옳고 진실함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거슬러보면 자주 맹세를 하고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고 주장했으나 그런 만큼 자신의 유익을 쫓아 자주 입장을 바꾸고 거짓말을 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은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요8: 4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자주하는 거짓말쟁이는 교회를 다녀도 사탄을 아비로 모시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차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망한다는(잠 19:9b) 확신을 가지고 소금과 같이 녹아질 각오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멀리하는 진실한 입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잠 12:22).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참말만 하는 입술은 길이 남아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눈 깜빡할 사이에 잘린다.” (잠 12:19, 공동번역)

그리스도인은 맹세하기보다 진실 된 말을 해야 합니다. 정직한 입술을 갖고 진실 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맹세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기영 교수
한국침례신학대학 구약학교수(PH.D)

출애굽 기사에 나타난 구원:

오경의 구성적 관점으로 읽는 출애굽 기사와 현대 크리스천의 구원 이해

1. 들어가는 말

구원이란 무엇인가? 만약 이러한 질문을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던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의 경험을 자신이 생각하는 종교적 신 념 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구원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할 것 이다. 그리고, 종종 이들의 성서학적 또는 신학적 뒷받침은 신약신학과 조직신학적 설명과 연관이 있다.

물론, 성서학자들이 구약의 본문에서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이들이 구약에서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경우, 구약에 나타난 개인 또는 공동체의 구원 경험(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성서 인물의 경험을 신약의, 더 나아가서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체험적 구원과 비교하는 방향으로 그 설명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관한 관찰에 기인하였으며, 특별히, 오경, 그 가운데에서도 출애굽 기사를 중심으로 구원이라는 개념의 설명을 시도한다.

세일해머(John H. Sailham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복음주의 학자들은 오경에 나타난 인물 또는 사건을 관찰한 결과로 제시된 구원의 개념이 오경의 저자가 제시한 구원의 개념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거나, 또는 더 발전된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한다. 세일해머는 이러한 관찰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두 진영이[언약신학, 세대주의신학]이 모두 놓치고 있는 것은, 성경 저자들이 관심을 집중시킨 구원의 개념이 자신들의 책에 의해 제시된 대로의 구원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에 의해 그들의 세계 안에서 이해된 대로의 구원이라는 점이다... 구약의 저자들은 구약 내 중심인물들과 너무 쉽게 동일시되었다. 따라서 아주 쉽게 성경 인물이 가진 구원에 대한 견해가 성경 저자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가정한다.

오경의 저자는, 분명히 모세를 제외하고는, 오경 내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인물과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던 모세가 출애굽에서의 구원 경험에 대하여 설명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경험일 수 있겠으나, 오경의 저자가 창조의 시대 때부터 가나안 정복 직 전의 시간대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오경의 긴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다른 인물의 경험을 말한다면, 이것은 모세 본인의 경험이 아니다.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누군가의 경험 또는, 사건이다. 이 둘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오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경험이 오경 저자의 경험 또는 관점과 동일시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차원

의 의미 — 만약 그 둘이 다르다면, 즉, 오경에 나타난 인물과 오경의 저자의 관점 —를 고려할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 전제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오경이라는 책은 오랜 시간을 거쳐 탄생한 여러 문서들의 조합이 아니라는 것이다(예: 문서설). 오히려, 오경은 그 저자가 전략을 가지고 여러 문학 자료들을 편집하여 구성한 한편의 책이라는 것이다. 오경의 저자는 오경에 나타난 인물과 공동체의 구원 경험 등을 포함한 여러 이야기를 무의미하게 나열하지 않았다. 따라서, 오경에 나타난 구원의 개념은 각 각의 다른 인물들이 보여준 신앙, 또는 그들의 종교의 탐색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본 논문은 오경에 나타난 구원의 개념을 출애굽 기사를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때, 출애굽 기사에 나타난 구원의 메시지가 어떻게 오경의 구성과 조화할 수 있는지 이해를 시도할 것이다.

여기서 구성이란 오경을 이루고 있는 여러 문학 자료들이 저자의 어떠한 ‘전략’에 따라 정렬 또는 배열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오경의 구조(structure), 즉 개요를 설명한 것 이상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첫째, 출애굽 기사가 어떻게 본 논문이 시행하는 구원 논의의 중심에 오게 되는지를 밝힐 것이다. 오경은 분량이 방대하며, 그 안에 많은 주제가 나타나기에(예: 창조, 타락, 심판, 언약, 믿음, 율법, 구원, 메시아 등), 구원이 라는 주제를 탐구하기 위한 중요 본문이 있는지 탐색하여 연구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본 연구는 도출된 본문을 중심으로 구원의 의미를 논하고, 그 결과가 오경의 구성적 관점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 것인지 설명할 것이다. 셋째로, 본문의 내용분석, 그리고 이를 오경의 구성적 관점으로 조명하여 도출한 구원의 의미를 신약의 메시지와 비교분석하여, 현대의 크리스천이 오경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안내할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론이 가지는 의의는 신약(특별히, 바울의 저작들)

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오경, 특별히 출애굽 기사를 중심으로 나타난 구원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권세로 이전에 이 방 신의 영역에서 다른 주인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소로 재위치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때, 오경의 구성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닌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구원받은 자들의 현재적 삶이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통치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오경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는 신약에서 동일하게 주어지기에 현대의 크리스천은 이를 적절히 적용할 수 있다.

홍해선교지 편집부의 양해 말씀

김기영 교수님의 논문을 본 홍해선교지에 게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지의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체 논문을 한 번에 게재하지 못하고 몇 차례 나누어 실게 됨을 김기영 교수님과 독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귀 논문에 인용되었던 각주도 생략하였으나,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공일주 박사(PH.D)
중동아프리카연구소 소장

아랍의 이상적인 어머니

아랍 무슬림의 이상적인 어머니상

아랍에서 어머니상이 변화하고 있다. 그것은 아랍 이슬람의 가치와 문화와 사회적 변화가 문화체계 속에서 작동하기 전에 사회적 현실이 먼저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랍 드라마들이 이상적인 어머니를 그려냈는데, 아예 어머니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는 배우들이 있다. 그 중에 이집트의 ‘아미나 리즈끄’라는 여배우가 있다.

그러나 아랍 및 이슬람 사회에서 과거의 이상적인 어머니상이 오늘날과 동일한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것은 아랍 무슬림의 이상적인 어머니상이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는 말이 된다. 하지만 무슬림 여성이 자신의 현실에서 겪는 변화와 무슬림 가족이 겪는 새로운 역할과 도전을 고려할 때 어머니상이 과거나 현재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다.

아랍의 과거 이상적인 어머니상은 여성의 모든 삶을 자녀에게 바치고 또 특정 가치관을 심었던 애정이 넘친 어머니였다. 과거의 아랍에서는 가정이 어머니의 유일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아랍에서 여성의 위치가 달라졌고 어머니의 위상도 연달아 달라졌다. 지금은 아랍 가정에서 부모의 경제적인 책임을 부부가 함께 맡으려는 가족이 늘고 있어서, 가족의 결속과 균형, 그리고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은 부부 모두가 나눠 맡아 하는 가정이 점차 늘고 있다. 따라서 과거처럼 집에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으로는 이제는 아랍의 이상적인 어머니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실, 외국인이 아랍 무슬림에게 부부상이나 아버지상을 강의하기 어렵다. 아랍 무슬림에게는 이슬람 율법에 근거한 가족법이 따로 있고 또 가족 간의 관계나 부부 간의 관계가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다. 아랍에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커플보다는 대가족 안에서 같은 외할머니나 동일한 친할아버지를 둔 손주들(남, 녀)이 서로 결혼하는 커플이 아직도 많다.(물론 아랍 국가마다 이 두 부류의 혼인 비율은 차이가 있다). 이들 커플은 결혼한 다음에야 서로 사랑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상적인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변화와 사고방식의 변화

아랍 이슬람 사회에서 이상적인 어머니로서의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함의가 필요하다. 아랍국가들은 물론, 세계적으로 전쟁, 긴장, 위기, 전염병 등으로 인해 아랍 가정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외부적 영향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그 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식량안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아랍의 중산층도 최근 몇 년간 새로운 위기를 경험했고 아직도 그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가족이 외부적인 영향을 받을 때, 아랍에서 어머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가난, 궁핍, 또는 학교 중퇴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결단력이 요구된다.

오늘날 아랍에서 이상적인 어머니는 가정은 물론 집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지난 10여년 전만 해도 요르단의 중산층 이상의 어머니들은 집 밖에 나가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못 했다. 그때는 남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 튀니지의 사회학 교수 아말 무싸는 아랍여성들이 가족의 지출을 돕고 또 특히 딸들에게 과거와 다른 여성의 모습을 전달하려면 어머니들이 직장에 나가서 성실함과 야심찬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다.

아랍 이슬람 사회에서 과거의 이상적인 어머니는 관습과 전통의 수호자이자 전통적인 사회가 좋아하는 가치와 관련된 사회적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변화하는 아랍의 이상적인 어머니상은 가족 내에서 아들 중심의 성차별 문화를 벗어나게 돕고, 남녀 아이들 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자녀들의 사고방식 변화를 위해서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아랍 무슬림 사회에서 과거와 오늘날 여성의 임무

아랍 이슬람 세계에서 과거 이상적인 어머니의 임무는 오늘날의 이상적인 어머니의 임무보다 더 쉬웠다. 예전에 어머니는 가족 내에서의 역할이 가족적 삶의 중심이었고, 또 사회 체계에서 가족은 가장 중심적인 역할로 여겼고 수직적인 관계를 선호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개인주의 성장, 수평적 관계, 가족 내 대화, 아동의 권리 및 소셜 미디어의 보급으로, 어머니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게다가 여성이 남편과 갈등 관계일 때 여성의 심리와 기분에 따라 이런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오늘날 아랍에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이혼과 별거와 긴장 관계가 생기면서 어머니의 능력이 갖는 한계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한다.

이혼 상황에 놓인 아랍 여성들은 심리적 고통과 실패감, 외로움 등을 경험한다. 남성 중심의 아랍 이슬람 사회에서 어머니들이 이별과 이혼 경험을 겪고, 또 도우미와 동반자 없이 살아온 과부와 이혼모를 이상적인 어머니로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 오직 자녀들만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들이 이상적인 어머니라고 생각해온 것이다. 아말 무싸는 “그러나 오늘날 이상적인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어제의 미덕보다 두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오늘날 아랍 국가에서의 어머니상은 이처럼 변화를 겪고 있다. 어머니의 전통적인 역할은 아직도 자녀 보호와 육아 담당이지만, 변화하는 사회는 아랍의 어머니들에게 가계도 분담하고 사회활동도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머니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조완길 목사(D.Miss)
홍해선교회담임목사. 홍해선교회대표

영적인 존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영적인 존재다. 내가 하나님의 DNA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인간의 사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인간의 이해와 분석과 해석은 모두가 지성의 결과물이다. 어떤 사유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성경의 계시는 인간의 눈 높이에 맞춘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열어 보여 준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말은 지적이고, 인격적이고, 자유 의지를 가진 행위자로서의 존재를 말한다. 또한 도덕적 진실성과 종교적 성결성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에 대해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존재다.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지만, 시간과 공간에 묶여 살고 있는 역사적 존재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창조성을 활용하여 학문적인 활동, 윤리적인 활동, 그리고 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다.

그 결과 세상에 자연종교와 진선미를 남기고 있다. 자연에 의존하는 사람과 계시에 의존하는 사람의 세계관의 차이는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자연 종교는 하나님의 영성을 지닌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상의 산물이다. 계시 종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 오셔서 계시해 주심으로 시작된 종교다. 모든 자연 종교에는 샤머니즘이 근저에 깔려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어떤 절대자를 찾도록 되어 있다. 그 절대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연 종교가 발전하게 된다. 자연 종교의 구원관은 자력에 의한 것이다. 자기 주권을 인정하고 행위 구원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죄와 죽음의 문제다. 죄는 헬라어에서 ‘하말티아’라고 한다. 궁수가 쏜 화살이 과녁에서 빗나간 상태를 말하며, 달리던 열차가 선로에서 탈선한 상태를 말한다. 이는 윤리적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가 근본적인 죄라는 것이다(시14:1). 반복되는 죄에 대한 후회는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결국 자학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갈5:16-18).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부정하는 이론들이 있다. 빅뱅이론, 진화론, 그리고 지적 설계론과 같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 부터 공립학교에서 그 이론들을 정설로 배웠기 때문에 진리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을 믿느냐 보다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일생동안 건강과 아픔,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 장미꽃과 가시가 한 줄기에서 나오듯이 인생에도 희노애락이 있는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견딜 수 있다. 고통 넘어에 있는 희망을 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게 고통은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렘29:11).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윤리를 실천하는 자다.

윤리는 옳고 그름, 선과 악 등의 도덕적인 가치를 다루는 철학적 분야다. 윤리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행동 규범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인간이 삶의 방향을 찾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윤리적인 가치들은 다양하다. 인간의 삶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 공정하고 정의롭게 대우하는 것, 진실과 정직성을 중요시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도움을 주는 것 등이다. 이러한 윤리적인 가치들이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며, 생각과 행동에 기준을 제시한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윤리를 알고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진선미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윤리는 거룩과 사랑이다. 거룩은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구별을 의미한다. 타락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크리스천도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를 외면하고 살 수는 없다. 문화적인 활동과 취미 생활을 해야 하지만 구별이 있어야 한다.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고 권면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히브리어 ‘헤세드’이다. 이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이다.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Great Commandment를 주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이 사랑이 모세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완성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을 준수하게 된다. 이웃을 사랑하면 사람과 관계된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품고 살아야 한다.

거룩한 생각을 심게 되면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되며, 거룩한 행동은 거룩한 습관을 낳게 된다. 그리고 거룩한 습관이 반복되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인격을 소유하게 된다.



주님 가신 길	우리 같이 걸어야 할 길은
그 길은	복음 전하는 길
십자가의 길	사랑을 나누는 길
사랑의 길	위로해 주는 길
치료의 길	아픔을 감사 주는 길
구원의 길	예배자의 삶은 사는 우리는
	이 길을 같이 걸어요

감사교회
최화희목사



김병수 목사
믿음교회담임목사. 홍해선교회사무총장

팔미도 등대의 비밀

최근에 우연히 인천 팔미도 등대에 관해 취재한 글을 읽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북한군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최신 소련제 탱크를 몰고 대한민국을 침략했습니다. 북한군의 급습에 밀려 서울은 전쟁 발발 삼일 만에 북한군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난지 한 달 만에 대한민국은 국토의 90%를 잃고 말았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결사 항전을 벌였습니다. 낙동강마저 무너지면 자유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소멸되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때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신의 한 수와도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인천 상륙은 미친 짓”이라며 반대합니다. 인천은 10m에 이르는 조수 간만의 차가 있고 수로가 좁아 대규모 선단이 진입하기가 심히 어려운 곳입니다. 북한군이 좁은 수로에 많은 기뢰를 매설할 경우 국군과 유엔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인천상륙작전은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맥아더 장군은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인천상륙작전 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인천상륙작전을 결심한 맥아더 장군은 KLO (Korean Liaison Office) 부대, 통상 켈로 부대라고 불리는 요원을 인천에 몰래 잠입 시킵니다. 이 부대는 조수 간만의 차를 조사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들이 수집한 정보는 상륙 작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한국인 3명과 미국인 3명으로 구성된 특공대에게는 팔미도 등대를 점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참고로 팔미도 등대는 우리 나라 최초의 등대라고 합니다. 인천 앞바다는 해협이 좁기 때문에 팔미도 등대의 불빛이 유엔군 선단의 항로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팔미도 등대는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7개국 261척의 연합군 함선과 10만명의 유엔군 병력이 인천 앞바다에 집결합니다. 새벽 0시 40분 팔미도의 등대가 켜지면 상륙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KLO 특공 부대원들은 팔미도 등대를 점령하고 등대의 불을 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인 후 등대를 점수하였지만 철썩같은 어둠 속에 등대를 켜는 나사못을 잃어버립니다. 나사못을 찾으라고 몇 시간을 허비한 부대원들은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3시간 후 최규봉 대장의 손에 작은 금속이 잡힙니다. 등대의 불을 켤 수 있는 나사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40분 드디어 팔미도 등대의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등대에는 약속한 대로 성조기가 게양됩니다. 등대의 불빛과 게양된 성조기를 보고 맥아더 장군은 “진격” 명령을 내립니다. 등대의 불빛은 유엔군 261척 선단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천상륙작전은 성공리에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9월 28일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다시 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센 바람 앞에 작은 촛불과 같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꺼지지 않고 다시 살아서 번영을 이루는 국가가 되었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계에 선교하는 국가가 된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한 사람들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팔미도 등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고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10일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힘든 암흑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오만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신 것일까?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지고 마는 것인가? 예수님은 과연 말씀하신대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신 것일까? 앞으로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지 열흘만에 오순절 날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마치 팔미도의 등불이 켜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임재로 이제 죄와 사망 권세는 무너지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D-Day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재로 죄의 사망 권세, 인생의 허무함,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들, 마귀의 잔당 세력들은 결국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최후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홍해 선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영환 선교사
인도선교사. 인도바이블칼리지 교수

검은 아프리카 선교 (1)

선교열전의 저자 루스는 아프리카 선교는 “백인의 묘지”라고 불려졌던 만큼 다른 어느 곳보다도 많은 개신교 선교사들의 목숨을 요구했다고 말한다. 복음 전파를 위한 희생이 컸던 만큼 아프리카 선교는 또한 많은 결실을 맺었다. 아프리카 선교는 아시아에 비해 뒤늦은 출발을 했으나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기독교가 확장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개신교 선교회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어느 지역 보다 빠른 속도로 기독교인이 증가되는 열매를 거두고 있다. 선교열전의 기록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 근대 선교가 시작된 것은 18세기 모라비안들에 의한 케이프 식민지 선교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그 후 18세기 말에는 런던선교회, 19세기 중반에는 침례교, 성공회, 장로교 등이 아프리카 선교에 참여하게 되어, 19세기 말에는 아프리카의 모든 지역에 선교사들이 들어가 사역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 흘리며 헌신하였지만 또한 아프리카 선교는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 이유로는 선교사들이 선교를 위해 식민주의 또는 제국주의와 야합하는 경우가 있었고, 선교와 아울러 아프리카에 유럽 문명의 강제 이식등을 들수 있다.

그렇다고 선교사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많은 아프리카 선교사들은 악한 식민주의와 투쟁하였다. 그들은 식민주의자들의 노예무역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였고 백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저지른 범죄들과 투쟁하였다.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또 한가지 비난은 사회과학자와 인류학자들에게서 나왔다. 그들은 기독교 선교가 아프리카 선교의 전통문화를 파괴하였다고 선교사들을 비난했다. 물론 일부 선교사들이 그들과 친숙하지 않았던 아프리카의 문화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원시 사회의 문화 관습에 기독교를 제대로 토착시키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또한 루스가 지적한 대로 아프리카 문화의 많은 부분이 건전하지 못한 것이었고 따라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예로 아프리카 인들은 부족 간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갔으며, 쌍둥이 살인, 식인 행위, 인간 제사, 요술등으로 그들 스스로 많은 희생을 가져왔다. 이러한 나쁜 문화를 뿌리 뽑기위한 선교사들의 노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고 오늘날 기독교가 아프리카에서 부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 3회에 걸쳐 남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로버트 모팻(Robert Moffat),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선교 역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데이비드 리빙스턴(David Livingstone), 그리고 여성으로서 어떤 백인도 살아남지 못했던 지역에서 아프리카 원주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선교했던 여성 선교사 메르 슬레서(Mary Slessor)를 소개하고자 한다.

간추린 이슬람 역사

I. 무함마드의 생애

1. 무함마드의 출생과 성장과정

- *서기 570년에 유복자로 태어나다.
- *바니 하와진의 할리마의 양자로 5년간 성장하다.
- *할아버지 압둘 무탈립에게 양육되다.
- *숙부 아부 탈립의 양자로 입적이 되다.

2. 무함마드의 결혼생활

- *25살 때에 카디자와 결혼을 하다.
- *시리아에서 네스토리안교의 수도사를 만나다.
- *자이납, 투카야, 움르, 쿨숨, 파티마 그리고 두 아들을 낳다.
- *AD 619년 카이자가 죽은 후 많은 아내를 얻다
(꾸란4:3; 33:50).

3. 무함마드의 신비체험

- *할리마의 집에서 흰 옷 입은 두사람의 방문을 받다.
- *12살 때에 바스라에서 수도사 바히라의 예언을 듣다.
- *610년에 히라 동굴에서 지브리엘의 방문을 받다.
- *621년 '밤 하늘의 여행'을 경험하게 되다.

4. 무함마드의 이슬람 창도

- *지브릴 천사는 알라의 와히를 가지고 무함마드를 찾아오다.
- *계시는 23년간 계속되다.
- *메카 시기(주후610-622) 우상숭배, 심판과 보상, 평화를 설파했다, 책의 백성으로 인정하다.
- *메디나 시기(주후622-632) 무함마드의 우월성, 움마조직, 정교일치, 지하드 선포를 계시하다.

5. 무함마드의 메디나 이주

- *615년에 추종자들을 아비시니아로 피신 시키다.
- *622년에 아부 바크르와 함께 메디나로 떠나다.
- *히즈라의 기원이 되다.

II. 정통 칼리프 시대

1. 아부 바크르(632-634)

- *정복 전쟁을 수행하다.
- *예루살렘과 지중해 연안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정복하다.

2. 오마르(634-644)

- *636년 야무르크 전투에서 비잔틴군을 격파하다.
- *638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다.
- *641년에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다.
- *히즈라를 이슬람 원년으로 도입하다.
- *644년에 자객에 의해 암살 당하다.

3. 오스만(644-656)

- *651년, 사산 왕조를 정복 하다.
- *653년, 꾸란을 편집하다.
- *히즈라를 이슬람 원년으로 도입하다.
- *우마이야 가문의 사람들을 등용시키고 족벌 정치를 하다.
- *656년, 자객에 의해 암살 당하다.

4. 알리(656-661)

- *지방 총독의 인사를 단행하다.
- *무아위야가 도전해 오므로 수도를 쿠파로 이전하다.
- *십핀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나 협상에 실패를 하다.
- *12000명의 추종자가 이탈하다.
- *카와리지파가 보낸 암살자에 의해 독살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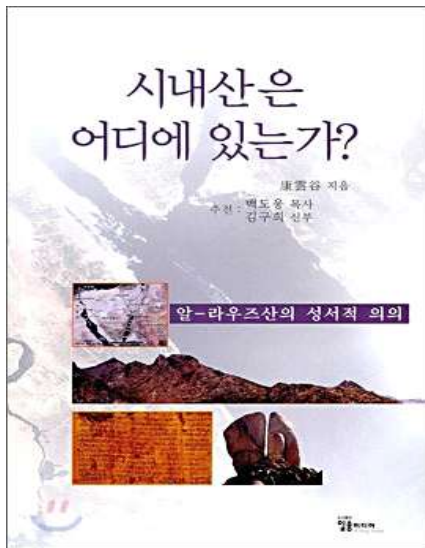
III. 이슬람 제국 시대

1. 우마이야 왕조(661-750)

- *세습 왕조가 시작되다.
- *680년 카라발라에서 후세인을 척살하다.
- *순니파와 시아파가 분열하다.
-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이베리아반도 5/4를 점령하다(711-1492).
- *732년에 카롤루스 마르텔에게 패배하다.

2. 압바스왕조(750-1258)

- *수도를 바그다드로 옮기다.
- *이슬람 문화와 학문을 발달시키다.
- *이슬람 법학이 발전하다.
- *셀주크 왕조에 점령되다(1037).
- *몽골군에 의해 패망하다(1258).
- *터키 공화국으로 축소가 되다.



공일주 박사(PH.D)
중동아프리카연구소 소장

국내에서 올바른 이슬람 담론

최근 필자에게 국내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질문 중의 하나는 "꾸란에는 '부인이 말을 안 들을 경우 동침하지 말고 그래도 안 되면 가볍게 때려라'라는 구절이 있다는데... 이 가볍게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건지요?"라는 질문이었다.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미 국내 출판물이나 SNS에서 떠도는 이런 말들의 진위를 필자에게 묻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국내 학계와 언론 그리고 국내 무슬림 학자들이 이슬람의 올바른 담론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위 질문 내용은 꾸란 4(알 니사)장 34절에 나오는데 아랍어 꾸란 본문에서는 "와드리부-훈나"라고 하여 "가볍게"라는 말은 아랍어 꾸란 본문에 나오지 않는다(이 구절에 대한 해석과 주석은 따로 다루려고 한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성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에서 4장 34절을 찾아보니 "먼저 충고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 것이며 셋째로는 가볍게 때려줄 것이니라"(140페이지)고 되어 있었다.

한 마디로 "성꾸란" 또는 "성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을 학술 연구에 절대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런 부정확한 꾸란의 의미 번역 책이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에 대한 담론을 혼란스럽게 해 왔기 때문이다.

이슬람 철학을 가르쳤던 하미드 따히르 박사는 '이슬람의 온전한 개념'이란 그의 글에서 다음 두 가지가 무슬림들의 이슬람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비무슬림에게도 잘못된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

첫 번째는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인데 이는 꾸란과 이슬람의 실제에서 벗어난 이해이다. 꾸란과 순나(무함마드의 말, 행동, 동의한 것)의 말에다가 개인의 생각이나 학설의 생각을 첨가해 이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민의 생각들 속에서 기름진 토양을 찾고 예외 없이 그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했다.

두 번째는 이슬람에 대해 '모자란 이해'라고 했다. 이슬람 전체 중 부분만을 알고 다른 부분들은 무시하고 어떤 특정 부분만을 붙들고 있는 경우이다. 이런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슬람을 전공하지 않는 학자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또 꾸란학, 꾸란 해석과 번역 전공을 하지 않는 무슬림이 꾸란을 의미번역한 책을 학생들과 시민들이 그대로 수년간 학습과 연구에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랍에서의 이슬람 담론

한국뿐만 아니라, 아랍에서도 학자와 사상가 및 지성들은 이슬람 담론을 검토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랍 젊은이들이 무신론에 빠진 이유 중 가장 두드러진 동기 하나가 이슬람 담론이 왜곡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이슬람 담론이란 말은 이슬람의 문제에 대한 무슬림의 이해를 가리킨다.

지난 몇년간 아랍에 널리 퍼진 이슬람 담론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이슬람 이미지를 왜곡했고 심지어 젊은이들을 무신론으로 밀어붙이는 데 성공했다,

지금은 극단적이고 강경한 담론이 무슬림들 사이에 퍼져 있는데 이들은 표면적이고 문자주의적인 담론을 이상적인 이슬람 이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아랍 무슬림들은 외적이고 문자주의적인 담론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꾸란이나 하디스의 텍스트를 해석할 때 외적이고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올바른 이슬람이라고 생각하는 무슬림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무슬림으로 나뉜다.

외적이고 문자주의적인 담론을 따르는 무슬림은 그들의 기준에 따르는 옷차림과 사회생활을 유독 강조한다. 여성이 히잡을 쓰는 것은 논의 대상이 아닌 의무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또 사회에서 남녀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그래서 일부 무슬림은 여성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부는 여성이 대학교에 가는 것을 금지시킨다.

홍해선교회 한국 세미나 성료

홍해선교회 한국 세미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또한 강사님들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세미나는 ‘출애굽과 시내산의 비밀’의 주제하에 한마음 비전센터에서 4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째 시간은 홍해선교회 대표 조완길 목사님이 ‘이슬람역사와 교훈’의 주제하에 이슬람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둘째 시간은 한국 침례신학대학교의 김기영 구약학 교수께서 ‘출애굽과 구원의 여정’의 주제하에 구약의 구원론에 대해서 심도 깊은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훈기 선생님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할 당시 직접 답사하셨던 옛 미디안 지역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자료들을 근거로 ‘알 라우즈산의 성서적 의의’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내산의 위치와 달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알 라우즈산’이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시내산 이라고 강조하시므로 시내산 위치의 전기설과 후기설의 진실성에 대한 연구 과제를 남겨주셨습니다.



홍해선교회 한국 세미나 안내

주제: 출애굽과 시내산의 비밀
 제1강: 이슬람의 역사와 교훈
 제2강: 출애굽의 구원여정
 제3강: 시내산은 어디에 있는가?

참 문야의 원문가를 모시고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이슬람의 역사를 연구하며, 2세기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6월 12일 2023년
 시간: 오전 10-오후 3시 | 장소: 한마음 비전센터
 주소: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488 인덕원메트로빌409호
 지하철4호선 인덕원역 6번 출구 (지하통로와 바로연결)
 연락처: 010-349-13496
 회비: 무료
 제출: 점심식사, '시내산은 어디에 있는가' 전자책 출품



조완길 목사
 홍해선교회 대표(D. MISS)
 주제: 이슬람의 제계인



김기영 교수
 한국침례신학대학 구약학교수(PH.D)
 주제: SHAPING ISRAELITE IDENTITY THROUGH PRAYERS IN THE BOOK OF CHRONICLES의 의의



강훈기 선생
 THE SYSTEMS INTEGRATOR
 주제: 시내산은 어디에 있는가? 기원 2세기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시내산의 위치를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밝히기



7월 선교보고

공일주 선교사(PH.D)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목사님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저의 건강 회복을 도모하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일이 “국내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슬림 배경의 신자에게 제자양육하는 사역”에 대한 강의입니다.

(1) 작년에 총회 이슬람대책위원회 강사로 섬기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한국교회가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이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파키스탄 무슬림들이 20년 전만해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일부 교회가 그들을 초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파키스탄 무슬림들이 한국에 전국적으로 20여개 이상의 모스크나 기도처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는 파키스탄 무슬림이 한국교회에 가려면 동료들 몰래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는 파키스탄 무슬림이 한국교회에 가려면 동료들 몰래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하므로 일주일에 한번 시간을 내더라도 잠시 교회에 왔다가 가기 때

문에 교회가 충분하게 그들을 양육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무슬림 전도와 제자양육에 경험을 많이 가진 영국인 팀 그린(Tim Green)을

초대하기로 하고 기도해 왔는데요. 금년 7월 25일 은현교회에서 대면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제자 양육 세미나를 가질 계획입니다.

(2) 금년 9월에는 이슬람을 이해하기 위한 이슬람 연구 세미나를 열고자 합니다. 9월 세미나에서

는 “이슬람 이해의 새 관점(황원주)” 그리고 “이슬람의 새로운 담론”(공일주)에 대한 강의를 계획 중입니다. 아직 장소가 섭외되지 못했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제목

1- 7월 25일 영국인 Tim Green(무슬림 배경의 신자에 대한 제자양육 전문가)의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이슬람국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9월 중 중동아프리카 연구소가 주관하는 "이슬람의 새 관점"과 "새로운 담론"에 대한 세미나의 장소가 확보되기를 기도합니다. 3- 2011년 이후 시리아 전쟁과 2016년 레바논 경제의 파탄 이후 레바논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한국교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4. 7월 25일 4-6시까지 강의는 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패스워드를 보내드립니다.

“팀 그린 초청” DMN 20차 세미나

2023.7.25.화.오후 2시-6시
은현교회(송파구 중대로 24, 아카데미 상가 3층)

MBB제자양육
“삶의 지평 속으로”

1부. 허요셉·공요셉·주성일
2부. 팀 그린 Tim Green
파카스탄, 아랍 선교사(인터뷰)
"Word of life" 디렉터
컬리믹시(Pat D. SOAS)
MBB 제자 양육 교재: Come Follow Me 저작

이슬람 관련 서적 두 권 제공. 공요셉 『이슬람권 선교가이드』 정승현 『무슬림을 향한 중인의 삶』 저녁 식사 제공
회비: 10,000원 (하나은행 57791021766107 주성일), 참가 및 후원 관련 문의: 주성일 010-9054-0446

주관: DMN



대한민국

1. 7월 25일 영국인 MBB 제자영육세미나 (강사:Tim Green)
2. 9월 중 중동아프리카 연구소가 주관하는 “이슬람의 새 관점”과 “새로운 담론”에 대한 세미나의 장소가 확보되기를
3. 2016년 경제의 파탄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레바논 교회들을 위하여



E국 선교사

- 1.아브라함 공동체 식구들이 옛 공동체의 감시와 도전으로부터 보호되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2. J 선교사 부부가 아브라함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S국 선교사

1. 아라비아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2. 저희 부부의 방문비자 신청을 순조롭게 하소서
3. 새 학기부터 시작될 사업이 방향을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4. 한국에서 들어올 비전트립 팀들을 인도할 지혜를 주소서
5. 한국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잘 성장하게 하소서.



Iranian Christians International Mission

1. Iranian Christians International의 발전을 위하여.
2. ICI에서 섬기고 있는 미국내 난민의 복음화를 위하여.
3. ICI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위하여.
4. ICI에 속한 난민들이 라마단 금식 기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Arabic Bible Church Denver (ABCD)

1. Ayman Armanious 목사님의 영력을 위하여
2.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ABCD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3.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 사역을 위하여
4. 덴버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5. 저술 활동과 방송 사역을 위하여(Ayman)
6. 라마단 금식 기간에 역 라마단 기도를 위하여



홍해 한국지부

1. 이사회 구성을 위하여
2. 선교사님들과의 협력 선교를 위하여



홍해 선교회

1. 미국 전역에서 이슬람관련 세미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2. 2024년 선교지 답사 준비를 위하여
3. 현장 선교 참여를 위하여